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구역 나눔	매월 셋째 주일	교육관 각 교실
찬양예배	월 1회, 토요일	음대 강의실 217호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기쁨을 나누는 교회(빌2:28)”



주일 예배 봉사위원

	08. 23	08. 30	09. 06
대표 기도	박재기 집사	황희순 집사	정용현 집사
성경 봉독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헌금 위원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안내 위원	유미경 집사	유미경 집사	황희순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소식

1. 성경 읽기 - 영의 양식으로 삼시다(행14~28장)
2.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3. 주일예배-정해진 시각에 있는 곳에서 예배에 동참하십시오(YouTube에서 브레멘한민 교회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대면예배 참석에 힘쓰시기를 권면합니다
4. 귀국 - 한명희 집사(16일)
5. 나눔의 시간은 당분간 모이지 않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일조	
감사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목사관 : Yperner Str. 7 28259 Bremen
 ☎ 0421/257 3831 | 0176-7242-4297(Mobile)
 E-Mail : josefrhee@hanmail.net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사도신경 (새번역).....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214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영희 권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단 2 : 8 - 12(구p1233)..... 김영희 권사
(Daniel 2:8-12)
- 설 교 Predigt 하나님의 큰 그림.....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215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박재기 집사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일은 항상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앞에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할 때 우리가 할 뭇은 끊임없이 생각을 그분께로 돌리고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연습 초기에는 하나님 말고 다른 잡념에 빠지는 성가신 습관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항상 앞에 두고자 계획적으로 자꾸 행동하다 보면 은혜 충만한 새로운 습관이 옛 습관을 대체하게 됩니다. 나침반을 아무리 흔들어도 바늘은 늘 정북으로 돌아가듯이 머잖아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신약성경 복음서를 날마다 정성 들여 읽고 또 읽어서 그 장면들과 말씀들을 암송하며 의도적으로 위의 생각에 두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루 일과를 보내고 밤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말과 상상력으로 그것들을 되살려 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하루 동안 끊임없이 생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도 되돌리는 연습을 하기로 작정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되 자신을 뒤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하루 동안 어떠했는지 검토하고 다음 날에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이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머잖아 우리는 세상과 교회의 혼란과 소음 대신에 예수님의 인격과 아름다운 말씀들이 저절로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잊혀진 제자도 / 故 Dallas Willard 목사
(미국의 목회자요, 철학자)

* 옛 자아의 죽음은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그 시작이다.

- 故 Charles Colson -